가짜설교의 수요와 공급

(예레미야 43:1~13)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4.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6.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짜설교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가짜설교의 수요와 공급'

어제는 각기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안수집사님 다섯 분이 강릉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던 중에 "강릉의 공기가 서울보다 맑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날씨정보를 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미세먼지 상태도 함께 보게 되는데 집사님들 말씀대로 제주도와 강릉이 남한에서는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같은 강원도인데도 춘천은 상당히 안 좋을 때가 많고 서쪽이나 남쪽으로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공기가 좋다는 강릉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에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보면 제 숨도 가빠지는 것 같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이 공장을 최대로 가동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수치가 500을 넘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미세먼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고 항상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에 미세먼지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인들의 영적상태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시대에는 고작 9% 교인으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교인수가 25%에 이르렀다가 점점 줄어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의 숫자는 교단을 초월해서 현재 이백 오십만 정도라고 합니다. 무척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방문하셨던 집사님들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더라도 성수주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미세먼지로 깨우침을 주시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세상에서는 며칠마다 한 번씩 맑은 날이라도 주시지만, 영적으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미세먼지 속에 갇혀있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북쪽에서 바람만 한 번 불어주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소모해서 최대한의 미세먼지 정책을 세워도 막상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신다면 다 허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설령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미세먼지는 바로 가짜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말씀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육체의 호흡을 방해한다면, 가짜설교는 영적인 호흡을 방해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상쾌해지다, 유쾌해지다’라는 뜻의 리프레싱(Refreshing)으로 번역하였는데 직역하면 ‘하늘을 호흡하게 되다’라는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늘 공기를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퍼트려 가면 세상은 따라서 정화되어 가리라는 것입

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정화해야 될 교회가 가짜설교와 가짜말씀공부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주로 가짜설교와 가짜성경공부를 생산하는 주범이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 또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미세먼지와는 달리 이 가짜설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세먼지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설교에 대해서는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요에 맞추어진 공급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본래 설교는 진짜이든 가짜이든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수요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가짜설교는 인간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진짜설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느끼시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수요가 되면 자연히 목사님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게서 수요를 찾게 되면 목사님들에게 가짜설교 가짜말씀공부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맞춘 공급도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는 가짜설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짜설교와 진짜설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의 신학사상이나 신앙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성경말씀에는 진짜설교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게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애써 외면한다면 가짜설교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외면하려야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짜설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짜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짜설교를 요구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 수요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42장에서는 군대장관인 요하난을 앞세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쟁이 없고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뜻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그에 따르겠다는 맹세도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열흘간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땅이 황폐해져서 삶의 회의가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는다면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령 바벨론이 와서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어기고 반발합니다. 심지어 2절을 보면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매도합니다. 자신들

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조작해서 따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을 박제하기 위해서는 내장을 긁어내고 뱃속을 솜과 같은 것으로 채웁니다. 겉모습은 남았지만 속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껍데기는 남겨둔 채 내부를 자신들의 뜻으로 채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 중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에 나온 결과가 하나님 말씀의 조작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변명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기에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42장 6절에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라고 하였던 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하나님보다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삶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개선시키려는 분명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의 바람이 충돌하게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소원과 바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당성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게 됩니다.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껍데기를 가져오고 말씀의 껍데기 속에 삶의 상황에 대한 소원과 바람을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설교가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 경위입니다. 가짜설교의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삶의 조건과 상황을 호전시키고 개선시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빌려와서 마음대로 내용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요구하고 또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으로 화답하며 마음은 희망에 부풉니다. 나의 소원은 대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으니 대단해보입니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뜻을 정당화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군사력과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을 해소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설교의 특징입니다.

이와 대비되게 진짜설교는 오직 하나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남으라고 한 것은 황폐한 조국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황폐하지만 머물고 있다 보면 애굽보다도 더 좋아지리라는 내용도 결코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은 삶의 용기를 잃었습니다. 앞날은 막막하고 바벨론 왕이 형벌을 내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올려 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해 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땅에서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갖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면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을 책임지실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걱정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땅의 삶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설교가 갖는 단 하나의 내용이고 반복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오로지 하나님의 책임 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해지고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공급되는 설교는 사건입니다. 이 진짜설교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소설가의 글에는 작가의 정신(spirit)이 담기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spirit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현장에서 진짜말씀을 전하고 듣는 동안에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배우자보다도 더 현실적인 존재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진짜설교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직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설교가 모두 드러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교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부름

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며 끝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 병에 안 걸리고 살게 될지, 자녀들이 형통할 것인지 불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교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설교가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일어날 일들이 마냥 잘 되리라고 외치는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가짜설교입니다. 호전된 삶의 조건이나 개선된 삶의 상황을 바라는 마음이 가짜설교의 수요를 만듭니다. 목사님들의 세미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개선을 꿈꾸고, 세미나 강사는 거기에 맞추어진 조언을 해주니 가짜세미나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미세먼지를 이루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때마다 언제나 영적 미세먼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짜설교는 이 땅에서의 상황이 개선되고 호전되기를 바라는 교인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껍데기에 이들의 소원을 내용으로 채워서 주는 것이 가짜설교입니다.

진짜설교는 이 땅의 삶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황폐한 유다 땅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랐습니다. 이 황폐한 유다 땅과 같은 현실이 극대화 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손과 발이 못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으면 온 살갗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땅의 관계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내 모습만이 실제상황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진짜현실이고 진짜상황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 땅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이 땅의 상황을 개선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하늘을 갖게 하고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몫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교차운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이 하늘을 갖게 하는 동시에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몫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반드시 만족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가짐으로써 이러한 교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껍데기만 가져다가 이 세상의 상황을 개선하는 꿈을 채워

서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의 기준은 명확한데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짜설교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본문의 유다 땅의 황폐함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땅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궁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는 땅에서 힘드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헌집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새집입니다. 헌집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설교, 가짜말씀 공부의 기준을 모르는 바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과 친해짐을 통해서 올해가 끝날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가 아니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교차운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생활화가 아닌 설교에는 귀를 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쾌청한 상태를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부자로 더욱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